



- 원시와 문명의 교차로 -

(濠洲酪農視察紀)

해태유업(주) 대표이사 민 병 덕

호주여행이 처음은 아닌데 호주를 여행할 때 마다 마치 새로운 사실처럼 문득 문득 느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호주라는 거대한 대륙에서 만 느낄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황들인데, 첫째로 원시와 현대가 교묘한 조화를 이루고 공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원시와 현대의 공존- 어찌보면 불협화음처럼 자칫 질서를 붕괴할 것같은 느낌도 들지만 이 호주땅에서 느껴지는 두 개의 공존은 新과 旧가 묘한 조화를 이룬 채 오늘도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다.

도시의 북판에 들어서면 마치 맨하탄의 거리에 들어선양 높고 암울한 색깔의 빌딩들이 여행자를 말아래 내려다 보고 있다. 선과 선으로 이어진 도심속에서는 오직 철저한 현대와, 문명과, 과학이, 살아 숨쉬는 인간의 본연만을 느끼게 하지만 도심의 빌딩 너머 한치 밖의 세상은 고개를 돌려 보기 전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가 펼쳐져 여행자를 당혹시키고 만다.

질푸른 숲 사이로 도도히 흐르는 강물위에 물을 차고 나르는 이름모를 작은 물새떼, 도심의 한 치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평야의 목

가적인 풍경들……. 다운·타운의 자동차 소음 속에 목동들의 노래소리가 함께 어우러진대도 하나 이상할 것이 없을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 이 호주의 첫째 느낌인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이 나라 이 거대한 대륙의 주인은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 것이길래 이렇게 조용한가 하는 느낌이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에 왜 사람이 이렇게 조금 밖에 살지 않을까? 시끌벅적거리는 동경이나 뉴욕 서울의 거리에서는 좀체로 느낄 수 없던 이질감이 바로 호주의 두번째 느낌이다.

지표가 낮은 거대한 땅덩어리에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호주는 침묵의 도시처럼 느긋하고, 편하고 안정된 마치 늦잠에서 깨어난 공룡의 느긋한 움직임을 보는듯해서 기묘한 느낌을 받는다.

흔히들 옛날부터 중국사람들을 일컬어 대륙적인 기질을 지닌 大人이라고 불렀다지만 大人의 기질을 호주인과 중국인이 겨룬다면 아마도 막상막하 난형난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여하튼, 원시와 현대, 침묵과 느긋함이 평화

롭게 큰 땅덩어리에 배어 있는 나라- 이 것이 바로 호주의 단면일 수가 있다.

이번 호주의 방문길에서는 낙농업의 전반에 걸쳐 우리 회사와의 업무 협조 관리 체제, 목장 현황을 둘러보기 위해 호주의 여러 지방을 다녀 보았는데 호주의 낙농업은 한마디로 내게 큰 감명을 주었다.

목장의 관리, 시설등을 돌아보려고 뉴사우드 웨일즈 교외의 한 목장을 방문하는 길에 차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초원의 평야의 경관을 바라보며 천연자원이 풍부한 생산물에 「과연 천혜를 입은 땅」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겨우겨우 목장에 도착하여 (이 겨우 겨우라는 말은 정말로 오랜 시간을 자동차에 시달려가며 사람 하나 구경못한 채 지루하게 달려왔기 때문이다.)

지평선으로 떨어져가는 태양의 낙조를 받으며 평화롭고 아늑하게 풀을 뜯는 소떼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이국의 아름다운 정취만을 느꼈었는데 막상 이튿날이 되어 그 넓은 목장을 둘러보고 송아지의 관리현장부터 채유, 냉각, 저장까지의 조직적이고 방대하며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보고는 우리에게도 정말 낙농의 보다 과학적인 도입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으로 보기에는 다분히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전원의 풍경속에 마치 이단교도의 거센 바람처럼 낙농과학은 뿌리박고 또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보니 먼저 얘기했던 원시와 문명의 공존은 이 곳 목장에서도 사이좋게(?) 성장해 가고 있던 것이다.

호주의 낙농업은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법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온 우수품종의 다산에 관한 연구와, 지역과 지역의 이질적인데서 오는 품종개량 연구, 젖소의

체질 개선 연구는 물론, 보다 우수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컴퓨터를 도입한 품질 개선의 시스템을 우리도 꼭 갖추어야만 할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전체적인 생산방법이야 모두 비슷한 것이었으나 어떤 분야에든 기술과학이 도입되고 응용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와 조금 다른점이라고나 할까.

목장에서 우수품종의 개량을 연구하는 기술자 블랙모어는 24세의 유럽계 청년이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인 화학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생체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의 소에 대한 정열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어서 앞으로 결혼도 소와 할 것이라는 농담도 서슴치 않는 쾌활한 청년이었다. 이 친구의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나는 이 유럽계의 덩치가 큰, 눈이 푸른 친구에게서 호주의 미래를 읽을 수 있었다. 호탕하고 느긋한 호주인의 기질에 일에 몰두하면 정신없이 빠져드는 그의 정열, 어려서 카우보이 영화에 심취되고 목장이 그렇게 멋이 있어서 목장에서 살기로 마음먹고 전공마저 바꾸어 가면서 인생을 배우는 젊은 의지등을 보고는 미래가 밝은 한 청년이라기 보다는 호주의 모든 젊은이 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목장을 둘러보며 나는 문득 얼마전 모 잡지에서 보았던 죠크 한토막이 기억나서 혼자 웃었는데 함께 걸던 블랙모어는 영문도 몰랐었다가 나중에 내가 이야기를 해 주니 아주 재미있게 웃던 일이 기억난다. 내용인즉 한 친구가 방학을 맞이해서 시골에서 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누나댁으로 휴가를 보내러 내려갔다.

누님댁에는 매우 큰 목장을 경영하며 수천두의 소를 키우고 있어 아르바이트점 휴양점 가는 길에 어린 조카의 선물로 동물 그림책을 한 권

사들고 내려갔다.

누님집에 당도하니 마침 모두들 일을 나가고 다섯살짜리 조카만이 빈 집을 지키고 있어서 일을 마치고 올 매부와 누님을 기다리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온 선물책을 조카와 함께 보았다. 어린 조카는 동물 그림책의 사자, 호랑, 이, 코끼리를 척척 알아 맞췄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젖소였는데 조카는 이 젖소 그림을 보고는 「도저히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친구는 답답해졌다. 자기집이 목장이고 아침, 저녁으로 보는것이 젖소인데 젖소 그림을 보고 모른다고 하니 답답할 밖에……

이 친구는 조카의 머리가 좀 이상한게 아닌가 하고 계속 다구쳐 물으니 그 꼬마는 한참 생각하다가 「틀려도 괜찮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음……다리를 보니 샴시로는 아니고 머리는 비슷한데, 헬포드종인지 무레이종인지 모르겠는데……』

× × ×

호주에서의 낙농업은 아주 인간의 몸에 배어 있는 타성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다.

16-17세기에 유럽인들에 의해서 지배되어 온 때도 물론 주요산업은 목축업으로서 세계적 양모국가로 발전을 했지만 그 훨씬 이전부터도 호주의 원주민들은 유목과 수렵생활을 통하여 의식주를 해결하였다 한다.

오늘날, 천혜의 조건아래 부유함을 누려가며 느긋하고 평화롭게 낙농산업을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어제 오늘에 급조된 산업의 형태가 아니고 먼 옛날부터 몸에 익어 왔고 습관화 된 호주의 목축, 낙농업의 현재임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낙농업에 투신하려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다.

막연히 목가적인 정경을 동경하며 축적한 재산을 낙농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저명인사도 알고 있으며 또한 정규대학을 마치고 목장에서 실기를 통해 키운 낙농업에의 의지와 야망으로 낙농발전을 도모하려는 젊은 열혈청년, 혹은 몇해를 고생하여 모으고 모은 목돈으로 생계의 방편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낙농업을 꿈꾸는 농촌의 소박한 젊은이들……

이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특이한 한가지 공통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이다. 목장을 경영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벌었다가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걱정이다.

나는 대답 대신에 호주의 낙농의 역사를 읽기를 우선 권하고 싶다.

몇백년 만에 배어 선조 대대로부터 면면히 이어지는 그들의 품성을 읽고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결코 오만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는 그들의 습성을 읽고 나면 비록 좁은 땅이고 산간지방인 우리나라에서도 그들과 같이 부유하고 힘찬 낙농입국의 꿈은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저들의 근면하고 성실함. 인간의 원초적인 곳부터 우리나라오는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느낀 것이 이번 호주 여행의 가장 큰 수확이었으며 진리는 어느 것이나 인간 본질의 마음속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어느 철학자의 말을 새삼 인용해 보고 싶다.